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·사회부 담당
발 신 윤석열즉각퇴진·사회대개혁 비상행동 (담당 : 언론대응팀 김희순·신미희·최은아)
제 목 통계로 보는 ‘윤석열 파면 촉구’ 비상행동 4개월 활동
날 짜 2025-04-05 (총 4 쪽)

보 도 자 료

통계로 보는 ‘윤석열 파면 촉구’ 비상행동 4개월 활동

연인원 1,000만명, 발언 1,000개, 시민행진 145km, 220여개 공연
124일 중 67일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수호 외치다
비폭력, 평등, 다양성, 유쾌, 혐오배제 등 시민정신 빛난 여정

1. 내란 사태~내란수괴 파면 123일

- 12.3 내란 사태 발발 123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. 무장한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지만, 시민들은 비폭력적·평화적 방식으로 맞섰습니다. 촛불과 여러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빛의 향연을 이루며, 민중가요와 K-팝이 함께 울려 퍼지며, 광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. 내란세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지만,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. 시민이 승리했습니다.

2. 124일간 67차례 집회시위, 시민행진 총 60회, 약 145km

- 12.3 직후 오늘(4/5)까지 **124일 동안 광화문 등 서울에서만 67차례** 집회시위가 열렸습니다. **이틀에 한 번꼴로** 시민들이 모여 내란수괴의 대통령직 파면을 요구한 것입니다. 12.3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(12/14)까지 **11일간 매일 국회 앞 집회**가 이어졌습니다. 매주 토요일 **18차례**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생계와 본업을 뒤로 하고 무박 투쟁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. 농민의 트랙터 시위행진을 경찰이 막아 생긴 **두 차례의 남태령 대첩**(2024/12/21~22, 2025/3/25~26)은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운집으로 무박 2일로 진행됐습니다. 한남동 관저에 숨어 적법한 체포 집행에 거부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서 ‘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’(1/2~1/5)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2박3일(1/4~6) 투쟁하며 **한남동 대첩**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.

- 3월 8일, 법기술자들의 ‘날’이 아닌 ‘시간’ 계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는 거의 매일같이 **긴급집중행동** 집회시위를 벌였습니다. 1차 긴급집중행동(3/8~3/15), 2차 긴급집중행동(3/16~3/22), 3차 긴급집중행동(3/24~3/29), 4차 긴급집중행동(3/31~4/4)을 진행한 끝에 현재의 파면선고로 긴급집중행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. 특히 현재 선고일 공지를 압박하기 위해 **24시간 철야 집중행동**(4/1~4/2), **끝장대회**(4/3~4/4)를 진행했습니다. 비상행동은 윤석열이 석방된 다음 날(3/9)부터 광화문 서십자각에 농성장을 차리고 긴급비상행동을 파면선고일(4/4)까지 27일간 이어갔습니다. **13명의 공동의장**은 3월 21일까지 **14일동안** 목숨을 건 **단식농성**을 진행했고, 2명의 공동의장은 12일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했습니다(건강 악화로 중단하고 병원 이송). 이후에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단 등 릴레이 단식에 참여했습니다. 윤석열퇴진 예술행동 소속 송경동 공동대표(3/11~3/25)를 비롯한 공동대표단의 릴레이단식도 (3/21-28) 이어졌습니다.
- 아울러 메리퇴진 크리스마스(12/24), 내란종식 대보름 한마당(2/12) 등 특별한 날에도 광장에서 함께 했으며, 나이트워크(3/5, 3/6),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규탄 대회(12/20, 12/26) 등이 진행됐습니다. 국회, 광화문 동십자각, 광화문 서십자각은 물론 서울 곳곳에서 진행한 **시민행진**은 **총 60회, 약 145km**로 이는 서울에서 대전까지에 이르는 거리입니다.

3. 천만의 시민, 천명의 발언, 천명의 예술인이 가득 채운 집회

- 유독 한파가 잦았던 지난 겨울,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 12.3 직후 오늘(4/5)까지 **연인원 1,000만 시민**이 광장에 나왔습니다.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한 1차 범시민대행진에는 100만 시민이, 한 차례 부결 후 치솟은 분노로 다시 모인 2차 범시민대행진에는 200만 시민이 운집했습니다. 또한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에 분노한 시민이 다시 대규모로 운집한 15, 16, 17차 범시민대행진에도 100만 시민이 집결했습니다. 토요일 범시민대행진에는 20~50만 시민이, 평일집회에도 수만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. 각각의 집회는 다채로운 발언과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. **약 1,030개의 발언**이 있었고 이 중 **약 70%**가 발언을 신청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. 아울러 **220여 개의 공연, 1,100명의 예술인**들이 집회의 다채로움과 흥겨움을 더했습니다.
- 무엇보다 124일 동안 큰 사고 없이 비폭력적·민주적이면서 다채롭고 풍성한 집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높은 인식과, ‘평등하고 평화로운 집회’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언을 매번 다짐하며 집회를 시작한 모두의 노력의 결실입니다. **총 1,0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**들이 1차 집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. 특히 현재의 선고 지연으로 분노가 치솟았던 13차, 15차 범시민대행진 당시에는 각각 약 28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집회를 위해 함께 해주셨습니다. 소외됨 없는 평등 집회를 지향하며 **수어통역사 연인원 166명**이 거의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. 비상행동 의료지원단(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)은 12월 7일부터 의료부스를 운영하며, 지역 각지에서 평일에는 20명,

주말에는 50~70명, 연인원으로 **약 2,000명의 의료인**이 참여했습니다. 환자들의 증상은 주로 경증이었지만, 철야 집회들에서는 심한 저체온과 전신의 온갖 통증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았습니다. 그들 중 다수가 쉬어야 한다는 의료진 권고를 따르지 않고 몸만 녹인 뒤 돌아가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. 오늘의 일상과 민주주의는 이들의 헌신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인권침해감시단(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)은 평일 10여 명, 시민대행진 50여 명, 연인원 **1,000여 명의 변호사**가 참여했습니다. 인권침해감시단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극우세력의 집회방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,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집회 금지(제한) 통고 집행정지 신청, 경찰의 집회장소 및 동선 통제 항의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. 이 밖에도 푸드트럭, 난방트럭, 핫팩, 생수, 휴지, 월경용품, 각종 식음료, 각종 약품 등 필요한 물품을 시민들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. 뿐만 아니라 집회, 철야농성을 진행하는 주변 상가, 종교시설, 주유소 등에서는 화장실, 쉼터 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.

4. 광장 너머에서 만난 150만 명의 시민 : 온오프라인, 각계각층, 전국 방방곡곡, 해외 각지

- 윤석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행동은 광장 집회 참여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**약 150만 명의** 시민을 만났습니다. ‘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’에 관한 **국회 청원**’(2024/12/4 ~ 2025/1/3)에는 **40만 287명**이 참여했습니다. ‘윤석열 파면 촉구 헌법재판소 시민의견서’(2/17)에는 **45,289명**이 참여했습니다. ‘72시간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’(3/30~4/1)에는 **100만 26명**이 참여했습니다(오프라인 집계 미포함). 특히 단 3일 만에 100만 시민 참여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. 이 밖에도 광장에서의 만남을 이어가는 ‘남태령 집담회’(2024/12/28) **70명**, ‘광야에서 광장으로 - 나의 광장 출동기’(1/25) **60명**, ‘광야에서 광장으로 - 나의 광장 획득기’(2/1) **65명** 등 시민 공론장에서 200여 명의 시민을 만났습니다. 광장 곳곳에서 수천 명이 함께한 추모의 벽, 다회용 피켓 꾸미기, 최악의 내란공범 투표, 시민재판, 광장 갤러리, 국힘해체 N행시, 내란을 멈추는 한끼 동조단식·거리강연·책방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. 아울러 윤석열 파면 촉구와 연대의 마음을 적고 걸어두었던 색색의 2만 개 리본도 광장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였습니다.
-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의 힘은 광화문 한 곳뿐만이 아니라, 전국 곳곳에서 주말은 물론 평일까지 셀 수 없이 이어졌습니다. 주말 집회만 있는 게 아니어서 취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서울 67회, 부산 50회, 울산 52회, 제주 29회 등 **전국의 100여곳 이상**에서 현재(4/5 기준) 취합한 것만 **1,800회 이상**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행동이 이어졌습니다. **독일** 프랑크푸르트, 베를린, 보훔, 슈투트가르트, 뮌헨, **프랑스** 파리, **영국** 런던, **일본** 도쿄, 오사카, 후쿠오카, **미국** 뉴욕, 워싱턴, LA, 아틀란타, 시애틀, 샌프란시스코, **캐나다** 토론토, **멕시코** 멕시코시티, **호주** 시드니, 멜버른, **뉴질랜드** 오클랜드 등 해외 각지에서 집회, 피케팅, 캠페인 등이 진행됐습니다.

- 비상행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별 활동도 이어졌습니다. ‘윤석열 파면 촉구 헌재 제출 의견서’ 릴레이 제출 기자회견은 **27차례**, ‘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릴레이 시국선언’(3/10~4/3)에는 시민사회민중단체, 여러 연대체, 종교인 등이 참여해 **47차례**나 진행됐습니다. 비상행동이 실시한 매주 금요일 국민의힘 해체의 날에 맞춰 ‘비정규직 이제그만’ 등 비정규노동자들과 ‘윤석열퇴진 예술행동’ 각계 문화예술인들은 국민의힘 청사 앞에서 1박 2일 연속 철야농성(1/17~1/18), ‘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쇼’(1/24) 등 내란동조 위험정당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. 아울러 24개 시민사회단체는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광화문역, 시청역, 혜화역, 홍대입구역, 합정역, 충무로역, 명동역 등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8대0 파면 긴급 공동행동 피켓팅(4/1~4/3)을 진행했습니다. ‘8:0 집중실천의날’(4/3) 서울 시내 곳곳에서 윤석열 파면 방송차 지역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. 구로구, 영등포구, 노원구, 강남구, 강동구, 광진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동대문구에서도 하루 종일 방송차량이 골목 골목을 순회했습니다.

5. 사회대개혁 향해 : 11개 분야에서 118과제와 424개 세부과제, 그리고 1개의 특별과제

-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개월 동안 **11개 분야에서 118개 과제와 424개 세부과제**, 그리고 **1개의 특별과제**(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)를 만들었습니다. 이 과정에는 비상행동 소속 1,700여 개 단체 대표로 127개 단체, 189명 전문가·활동가,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. 또한 사회대개혁 온라인 시민공론장인 ‘천만의 연결’을 통해 **10만 여명의 시민**을 만났고 **총 800여 건의 시민의견**과 사회대개혁 정책제안을 받아 과제에 반영했습니다. 서울에서는 28개 테이블,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**사회대개혁 대토론회**(3/9)를 진행하여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모았고, 경남, 광주, 인천, 전남에서도 각 지역별 의제를 포함한 사회대개혁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. ‘천만의 연결’을 통해 제안된 지역, 동네별 사회대개혁 대화 모임인 ‘**천만의 대화**’도 전국 곳곳에서 **32개의**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. 사회대개혁특위는 시민들이 함께 만든 사회대개혁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, 대선 과정에서 이 요구들이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‘천만의 연결’과 정당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각 정당들이 사회대개혁 과제를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해 나가는지 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. 8년 전 박근혜 퇴진 이후 사회대개혁이 좌초되었던 촛불혁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요구할 계획입니다.

6. 총 7건의 고소·고발, 1건의 헌법소원

- 내란 및 외환 세력에 대한 사법적 조치도 이어갔습니다. 윤석열 등 내란죄 및 외환죄 혐의 고소·고발(12/17, 26), ‘체포방해’ 경호처 박종준 처장·김성훈 차장 등 고발(1/3), 12.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(1/7), ‘헌법재판관 미임명’ 최상목과 국무위원 21명 직무유기 고발(3/6), 심우정 검찰총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(3/9), 트랙터 불법견인 등 박현수

서울청장 직무대리 등 고소(3/26),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등 공수처 고발(4/1)로 **총 7건의 고소·고발, 1건의 헌법소원**을 제기했습니다.

7. 마지막으로 **윤석열즉각퇴진·사회대개혁 비상행동**은 2024년 12월 11일 발족하여, 현재 전국 1,73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, 140명 활동가들이 이 모든 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. 끝.